

장성군, '미래 10년' 이끌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구상·수립 용역 추진 역사·문화·생태적 특징 활용 시대적 흐름 반영 콘텐츠 주력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백양사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진 장성군이 '미래 10년'을 이끌 관광자원 개발에 착수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2030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구상·수립 용역'을 시작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관광자원 찾기에 나섰다 밝혔다.

해당 용역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14개월간 진행된다며, 군비 2억원이 투입됐다.

장성군은 용역을 통해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적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모색한다.

또 관광자원 간 연계 방안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별 주민회의와 사회단체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체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성군은 방치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 성공적으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주목받았다.

잡플 가득했던 황룡강은 대한민국 최고의 꽃강으로, 농업용 댐에 불과했던 장성호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켰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내실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로 장성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주민 의견과 관광수요 분석, 시대 변화 예측 등이 용역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세계질 다양한 꽃이 피는 황룡강 고수부지는 장성 관광의 변신을 대변하는 곳이다.

<장성군 제공>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45개 마을 신규 선정 28일까지 읍·면·동 사업 신청

나주시는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을 가꾸는 전남도 주관 시책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름마을 만들기는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관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오는 2025년까지 도내 22개 시·군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까지 매년 50여개 마을을 선정, 3년간 3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나주시는 올해 45개 마을을 추가 선정, 컨설팅을 통해 특색있는 마을 경관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마을은 시 자체검토, 전남도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2021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나주시 영산7동 주민들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꽃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여기에 남평읍 '남평마을', 봉황면 '대심마을', '영산동 7동' 총 3개 마을이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돼 올해 2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배정된다.

시는 마을별 '클린(Clean)나주 만들기',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 조성', '도시재생' 등 앞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을 으뜸마을 사업과 연계하고 공공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 활동의

시너지 창출에도 힘을 계획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름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쾌적한 환경과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주민들의 값진 땀방울과 애정을 통해 지역 곳곳을 아름답게 가꿔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흥군, 청태전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

지재권 보호 청태전 명성 굳히기

장흥군이 지역 특산 전통발효차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사진)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한다.

지리적표시제는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했음을 등록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후에는 국내외에서 농산물, 수산물 등 그 가공품의 지적 재산으로 인정돼 보호받게 된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표고버섯, 키조개, 무산감, 매생이 등 4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푸른 이끼가 긴 동전 모양의 차'라는 뜻으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전남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전통발효차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관련 연구와 자료수집, 현지조사 등 청태전관련단체와 협업을 통해 심사절차 전반의 지원 후 최종 등록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흥청태전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천년전통을 간직한 발효차



로 상징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지역 최초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개설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 유기견 입양도우미제 도입

담양군이 국내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3개 분야 9개 세부추진과제를 세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군민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군은 전남지역 최초로 직영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설해 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유기동물보호소를 '유기동물치유센터'로 변경, 유기동물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양 활성화와 유기로 인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담당자를 지정해 유기견 입양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유관기관에서 입양이 가능한 경우 필요 물품을 지원 중이다.

현재 입양예정인 28마리 중 14마리가 읍·면사무소와 사업소 등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유기동물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한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동물복지 캠페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반려동물 만큼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늘고 있다"며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함평군, 골재채취장 위반사항 15건 적발

방진덮개 설치 등 10개 항목 점검

함평군은 지역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은 건설·환경 등 골재 채취 관련 부서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보·월야 지역 골재 채취장 7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폈다

점검 결과 심도 초과 1건, 품질시험 결과서 미비 2건, 경계표시 미흡 4건 등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골재 채취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덤프트럭 과속, 미복구 등 최근 골재 채취장 인근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해보·월야 지역 골재 채취장 7곳으로, 채취 심도 준수, 방진덮개 설치, 세륜기 운영 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골재 채취장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